

## 뇌사자 장기기증 제도의 정의론적 분석

김 소 윤<sup>‡\*</sup>

### Analysis of the Organ Distribution Rule by the theory Of Justice

So Yoon Kim<sup>‡\*</sup>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brain death donation transplant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organ distribution rule by 'the Rawls' theory of justice' before and after the launching of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KONOS, 2000. 2. 9)

Before the launching of KONOS, there was correspondence in the fact that brain death was not considered as death by all brain dead patients. But, actually many brain dead patients donated organs, therefore there was no correspondence in reality. In the current organ distribution rule, brain death is considered as death, with party, for all brain dead patients who express intention to donate organs, and it is legally permitted with the premise of 'organ donation'

Before the launching of KONOS, the distribution of organs from brain dead patients was done as 'liberal nobility', after the launching of KONOS, it was done as 'democratic equality'.

On the whole, after the launching of KONOS, and the execution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rule, the party of organ distribution improved as an aspect of the distributive justice, when compared to the past, but not as an the aspect of the transplanted kidney survival rates. Henceforth, workers in the field of organ transplantation need to devote all energies to secure brain dead organ donors.

**Key Words:** Brain Death, KONOS, Rawls' Rule of Justice, Organ Transplantation

‡ 교신저자: 김소윤 (syoonkim@hanmail.net)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보건의료정보PL(Part Leader), 기술서기관

## I. 서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장기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를 담당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가 1999년 4월 국립의료원에 설치되어 2000년 2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출범과 동시에 뇌사자 장기는 이식대상자선정기준에 따라 분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뇌사증자의 수가 급감하는 등 오히려 뇌사자 장기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자 장기이식등이식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의한 뇌사자장기의 이식대상자선정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데 의학적으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여도, 의료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특히 뇌사인정은 장기이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필요성이 과연 뇌사판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극심한 상황은 쉽게 타개될 수도 없고,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뇌사를 인정하고 이식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조사에서 이러한 견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뇌사인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1)..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한 뇌사자 장기기증 제도를 '롤스의 정의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들에 대하여 개관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정의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정의론에는 공리주의적 이론(utilitarian theories), 자유지상주의 이론(libertarian theories), 공동체주의 이론(communitarian theories), 평등주의 이론(egalitarian theories) 등 여러 이론들이 있다(김일순 등, 1999). 공리주의 이론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배의 형평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힘들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기존의 재도의 생산자 위주의 권력체계를 보다 강화시키며, 소비자들의 분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합한 정의론이라 볼 수 없다. 막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 이론은 이의 실시를 위해 요구되는 생산양식의 전면적인 변화와 같은 기본 전체 조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없다(김소운, 2002). 이에 반하여 롤스(J.Rawls)는 '사회정의론'에서 기존의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정의론은 '정의'를 '정의로운 결과'에서 찾고 있다. 즉, 정의로운 결과가 주어져 있고, 어떻게 분배해야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두들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정의론이 성립하려면 우선 '정의로운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결과를 산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로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대안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론을 내세웠다. 즉, 분배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정의로우면, 그 결과는 모두 정의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정의’가 ‘정의로운 절차’에서 확립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절차’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롤스는 또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최소수혜자 계층에게 최대이익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제한된 평등이념과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롤스의 이론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장기분배권을 인정하며 이러한 정책의 담당자로서 국가의 역할 또한 인정한다(배상수, 1990)

### III. 분석결과

#### 1. 롤스의 정의론 제1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원칙은 제2원칙보다 우선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서열적 순서를 이루고 있다(황경식 역, 1985). 이러한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뜻 하는 바는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자유의체도로부터의 이탈이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점이다. 뇌사와 이식 대상자 선정문제는 반드시 동등한 시민권의 자유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한에서 생각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했을 때, 뇌사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뇌사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뇌사기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의료진에 의해서 권유되는 뇌사자에 한해서 장기기증이 이루어 졌다. 그 상태는 모든 뇌사자에게 장기기증 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제1원칙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도 뇌사는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든 뇌사자에게는 동등하게 죽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제1원칙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뇌사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접하였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 2. 롤스의 정의론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즉,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제2원칙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와 '모든 사람에게 개방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황경식 역, 1985). 이 두 구절은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들 의미는 상호 독립적인 까닭에 결국 이 원칙은 네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갖게 된다. 평등한 자유에 대한 제1원칙이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그 두 원칙에 대해 네 가지 해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제2원칙에 대한 네 가지 해석

'평등하게 개방됨'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됨	
	효율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	자연적 자유체제	자연적 귀족주의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적 평등

### 1)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 체제

자연적 자유체제가 내세우는 바는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구조가 있으며 그 속에 여러 직위들이 그에 대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자에게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것은 이러한 할당이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부와 소득, 권한과 책임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체제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학설은 다른 해석들에도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2) 자유주의적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사상은 직위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천부덕 자질의 분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재능과 능력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 체제 내에서 그들의 최초의 지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태어난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바는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법적제도 체계 내에 성립해야 한다.

### 3) 자연적 귀족주의

자연적 귀족주의 사상은 형식적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자들의 이익은 사회의 저열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한된다. 귀족주의적 이념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된 체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층에게 적게 주어지면 하층에도 보다 적게 돌아갈 경우에 만, 유리한 자들의 보다 나은 처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noblesse oblige)는 관념이 자연적 귀족주의의 입장 속에 형성된다.

### 4)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관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만일 평등한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 받지 못한 자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은 한 사회 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2원칙에 의해 현행 뇌사자 장기이식 등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뇌사자의 장기를 모든 이식대기자에게 줄 수는 없다. 즉 어떤 사람이 먼저 장기를 기증 받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원칙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전에는 일부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한 경우 그 장기가 장기이식

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로 분배되어지지 않고 주로 뇌사자를 발굴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서 각 기관의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서 분배되어 왔다. 이것은 '돈이 있으면 이식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에 부합되고, '사회 계층간 분배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귀족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후 뇌사 기증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가 높은 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이식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에 합당하다. 그리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점수에 의하여 순위를 매길 때, 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를 줌으로써,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등'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표 2.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전후에 대한 '롤스의 정의론'에 의한 분석 결과

		제1원칙	제2원칙		
		'동등한 권리'	'평등하게 개방됨'	'모든 이에게 이익'	해석
KONOS	출범 전	모든 뇌사자가 기증권유를 받지 않음	뇌사관리기관 임의로 이식자 선정	사회계층간 분배의 차등	자연적 귀족주의
KONOS	출범 후	모든 뇌사자가 기증권유를 받을 수 있음	법률에 따라 이식자 선정	선정기준에 따른 분배의 차등	민주주의적 평등

#### IV. 고 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출범 이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기증자의 확보였다. 민간에서 할 때 보다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난 후에 뇌사기증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125명, 1999년 162명이던 뇌사기증자가 2000년에는 64명으로 줄었고, 2001년 52명, 2003년 36명에 불과하였다가 2003년 68명, 2004년 86명으로 다소 늘고 있는 상황이다(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www.konos.go.kr](http://www.konos.go.kr)). 장기분배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증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만큼 대기자들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후 뇌사상태의 환자로부터 장기기증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뇌사자를 확보하려는 의료진들의 의지가 출범 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 외에 뇌사나 환자 상태에 대하여 뇌사자가족의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장기기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가족들이 장기기증에 반대하는 경우, 뇌사자의 뜻을 알 수 없어 결정할 수 없는 경

우, 사회적 또는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고 유언한 경우, 종교적인 이유, 병원 의료진과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여기서는 외국의 뇌사자 장기기증제도를 고찰하고, 저자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제직 당시에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던 우리나라 뇌사 기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겠다. 다만, 최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장기기증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어서, 여기 제시된 문제들 중 일부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 1. 외국의 뇌사자장기기증제도 고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장기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하희선, 2000).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도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뇌사자 수 감소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 1) The National Transplant Organization(ONT)

1989년 스페인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이후 뇌사자 장기기증이 많이 증가되었다.

#### 2) Making the Critical difference(MCD)

1989년 미국 신장재단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8시간의 워크샵으로 뇌사자 가족에게 장기기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뇌사자 가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장기기증 안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 3) The European Donor Hospital Education Program(EDHEP)

Eu.otransplant(ET)에서는 1990년 이식 대기자에 비하여 장기기증자 수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이러한 원인이 의사, 간호사, 의료진과 기증자 가족과의 의사소통부족에서 야기되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하여 1991년 EDHEP을 개발하였다.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권유하기 위하여는 죽음과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진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기증자 가족들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증자 가족에게 접근하여 장기기증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의사소통 기술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4) The Partnership for Organ Donation

1990년 민간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150여개 이상의 병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잠재 뇌사자 파악과 장기기증 권유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 5) Donor Action Program

1994년 유럽, 스페인, 미국의 장기이식관련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장기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서 잠재 뇌사자를 발견하여 장기기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Donor Action Foundation이 설립되어 각 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을 지원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제도 고찰

### 1) 뇌사기증 절차의 문제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후 뇌사기증 절차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판정 절차는 지나치게 엄격한 외사판정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실제 장기기증자에게는 시간지체로 인한 증여 불가 등 장애 요소로 적용하기도 한다. 또, 뇌사판정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는 사실상 뇌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인이 아닌 위원의 역할도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기기증 절차의 복잡성인데 구비 서류의 과다 및 반복 작성으로 장기기증자, 수혜자, 이식 실무자가 행정상 심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KONOS 전산 프로그램과 서류양식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지역의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잠재적 뇌사자의관리문제이다. 뇌사자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결국 뇌사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환자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넷째, 실제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에서 뇌사자를 이송하고 관리하여 장기 적출 및 수술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당 병원과 직접 관련 없는 상태에서 이식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므로 환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헤아릴 수밖에 없고 또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이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다.

### 2)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뇌사자 발생 병원(특히 중환자실)에서 잠재 뇌사자를 파악하고 장기기증을 권유하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의료진 교육(의사, 간호사), 각



병원 별로 장기기증 위원회 운영, 매일 중환자실의 입원환자 파악, 매일 중환자실 방문, 주치의가 뇌사자 가족에게 환자가 뇌사상태임을 충분히 설명, 뇌사임을 설명할 때 명문화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진료기록지에 기록하는 방안 등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생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였다가 뇌사시 또는 사후에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일 수 있고, 장기기증에 관한 학교 교육, 국가적인 장기기증 등록사업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셋째,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여, 위령탑, 납골당을 건립하고, 장기기증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세금 감면, 국가 유공자 대우 등)을 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뇌사와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언론 매체를 이용한 장기기증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독립 장기적출기관(Independ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을 운영하여, 현재의 병원 중심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을 보다 전문적으로 뇌사자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침체의 주원인이 잠재뇌사자 발굴부족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뇌사자 발굴 모니터링제도 활성화와 장기기증 지원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보강 등 뇌사자 발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뇌사 장기이식 제도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대하여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법률 시행 전에는 뇌사가 죽음의 일종이라는 것이 뇌사자 모두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동등하였으나, 일부 뇌사기증자에 의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등하지 않았다. 법률 시행 이후 뇌사는 ‘장기기증’의 전제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모든 뇌사자에게는 동등하게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이전에는 뇌사자의 장기분배가 ‘자연적 귀족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범 이후 ‘민주주의적 평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률 시행 이전보다 이후 공정성이 많이 확보되었으나, 뇌사 장기기증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향후 장기이식 관련 종사자들은 뇌사 장기기증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기증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소운. 법률상의 장기분배기준 등의 정의론적 분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출범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pp. 14-16.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내원칙. 서울: 계축문화사; 1999. pp. 146-153.

- 배상수. 보건의료서비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pp. 145.
- 하희선.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 심포지엄 신장이식 1000례 기념. 서울: 서울중앙병원; 2000
-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서울: 서광사; 1985. pp. 4-86, pp. 291-293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과대학 학습목표에 기초한 의료윤리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1. pp. 332-335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www.konos.go.kr](http://www.konos.go.kr)

K C I